

#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분석

## Time-Use Analysis of Urban Employed Husbands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李基榮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宋惠林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李昇美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閔純善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徐志園

Dep.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l. Univ.

*Prof.* : Ki-Young, Lee

Dep.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

*Full Time Instructor* : Hye-Rim, Song

Dep.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

*Full Time Instructor* : Seung-Mie, Lee

Dep.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un-Seon, Min

*Dep.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Ji-Won, Seo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s (1) to analyze urban employed husbands' time use applying a

framework which classifies a day into public time, familial time, and individual time in order to demonstrate its disproportion in terms of their and their families' welfare, (2) and to identify the related factors to their time use. Data for 280 husbands were gather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Husbands' time allocation is usually concentrated on their individual and public time, while they spend relatively very short familial time.

(2) Types of occupation, age, and wives' employment status are all related with husbands' time use, but their sex-role attitude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

## I. 문제제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객관적인 자원이면서, 1일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축적될 수 없는 제한적 자원이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물질 자원을 향유하는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시간자원이 갖는 제한성은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는 시간관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루 24시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가족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따라서 가정학을 포함하여 인간과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에서 '시간'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개 주부만을 대상으로 가사노동 시간이나 분담율에 대한 지각 혹은 주관적 평가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시간일지법을 사용하여 부부간의 생활시간구조 자체를 분석하거나(이기영 외, 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그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기영·이승미, 1994)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현아, 1994; 최수선, 1995)도 주목을 끈다.

취업주부가 증가하면서 가정학에서는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적 측면에서 시간배분의 균형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켜 왔으나, 상대적으로 남편의 편중된 시간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덜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역할고정화 측면에서나 생활시간 배분

의 편중성 측면에서나, 기혼 남성의 생활시간 구조상의 문제점은 분석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부터 남성과 여성은 가정 내·외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분리되는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남성은 외부의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하는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여성은 사적인 영역인 가정내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성별 역할고정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와 같은 역할분화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의해서 "분리된 세계의 신화(myth of separate worlds)"로 더욱 강화되었고(Kanter, 1977·이현아, 1994:1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남성의 가정생활내의 다양한 역할들은 무시되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더욱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되었고, 이는 여성이 가계부양자 역할을 남성과 공유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과, 여성의 생활공간이 사회적, 공적인 영역으로 더욱 확장되어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도 가정내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한다는 기대로 나타나고 있으나(김순주, 1994:1; 이현아, 1994:3), 아직도 사적인 영역에서 남성의 역할공유 비율은 여성의 부양자 역할공유 비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활시간구조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여전히 공적인 영역에 그들의 시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편의 생활시간구조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활의 주체로서, 남성의 복지 및 단위체계로서, 그리고 가정의 복지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남편의 불균형적인 생활시간은 부부간의 경험세계를 분리시켜서<sup>1)</sup>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김순주, 1994), 장시간 직장노동으로 인한 시간제약은 아버지 역할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한경혜, 1995)으로서 가정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남성 개인의 복지적 측면에서도 그들의 전면적인 인간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경험, 공적·사적인 혹은 사회적·개인적인 다양한 생활영역에의 참여가 정서적, 기능적 측면 모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때, 편중된 생활시간구조의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남편의 경우 직업역할 수행을 위한 시간 요구의 절대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sup>2)</sup> 공적인 영역에 시간배분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에 관심을 갖으면서 그 생활시간 구조상의 불균형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틀로써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새로운 틀은 생활시간을 공적 시간, 가족시간 그리고 개인적 시간으로 대별하고 활동의 목적별로 세부항목을 구분하는 형태를 띤다(v.Schweitzer, 199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틀로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배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생활시간 구조상의 불균형성과 편중성의 문제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남편의 전면적인 발달을 돕고 노동력의 풍요로운 재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왜 그리고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활시간구조상 공적/사적, 사회적/개인적 시간의 균형있는 배분을 모색하며, 그럼으로써 남편 개인과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의 보다 나은 가정생활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기혼남성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한 초기의 연구들이 주로 가사노동분담의 관점에서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의 참여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최근의 연구들은 남편이 부인과 더불어 가정생활의 동등한 주체로서 가정의 복지는 남편 자신의 생활의 질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기혼남성의 생활시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와 기혼남성의 생활시간은 그 개인의 복지 뿐 아니라 한 가정의 생활양식이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인의 생활시간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다는 점에 연구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직업을 가진 유자녀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현아(1994)의 연구는 우리나라 남편의 총직업노동시간<sup>3)</sup>이 평일 11시간 43분, 토요일 8시간 21분으로, 평일은 하루의 1/2, 토요일은 하루의 1/3 가량이 직업노동에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현아, 1994:44). 다른 연구들(이기영 외, 1994; 이기영·이승미, 1994)에서도 부인의 취업여부나 가정생활주기와는 무관하게 남편의 수입노동시간<sup>4)</sup>은 평일에 10시간 반 이상, 토요일에 7시간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직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은숙(1990)의 연구

- 1) 한경혜(1995)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들의 대다수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며,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좋은 일만 선별적으로 한다고 한다.
- 2)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최근들어 해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의 1992년도 '노동통계연감'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미국(40.7시간), 독일(39.2시간), 일본(40.0시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길다(이현아, 1994).
- 3) 여기서 총직업노동시간에는 근무중 식사, 통근 시간이 포함되었다.
- 4) 여기서 수입노동시간에는 통근과 내직적 노동, 재택근무 시간이 포함되었다.

와 장년기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숙현(1995)의 연구를 통해서도 남편들의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은 다른 생활에 투자할 시간을 제약하게 되므로,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시간부족'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김옥숙, 1990), 기혼남성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에 3시간 미만, 토요일에 5시간 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외, 1994; 이현아, 1994). 또한 대기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직장인의 73.5%가 하루평균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선일보, 93년 9월9일자), 생리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 9-10시간 정도, 일요일에는 약 11시간 5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아, 1994; 이기영 외 3인, 1994a). 그리고 가족원 돌보기를 포함한 가사적 시간은 평일에 21분, 토요일에도 1시간 미만으로(이현아, 1994; 이기영 외, 1994)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노동시간이 생활시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회문화적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이 생리적 시간과 가사적 시간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아, 1994). 이는 평균 수입노동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일요일에, 사회문화적 시간이 약 9시간인데도 가사노동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이기영 외, 1994)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남성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생활 시간이 매우 적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직업노동을 위해서 자기자신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위한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생활시간의 구조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2. 생활시간 연구의 가정복지적 관점

기혼남성의 생활시간의 이러한 편중성은 역사적으

로 성별 분업과 역할고정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산업화 이후 일터와 가정, 즉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공간적 분리가 뚜렷해짐에 따라 남성의 영역은 일터로 제한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담당자의 역할이 '남성적' 역할로서 부각되어 왔다. Bernard(1981)는 약 1830년대부터 '능력있는 생계부양자(the good provider)'가 남성의 역할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남성에게는 일터의 성공이 중요시되었고 다른 가족 역할의 수행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의 몰입으로 인해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덜 참여하게 되어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마치 남성이 '가족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구조화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변화와 함께 남녀의 공적/사적 영역의 역할분리의 원칙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한경혜, 1995: 40) 남성의 생계담당자 역할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도전을 받고 있다. 부인의 취업 증가와 핵가족화 경향, 여권론적 의식변화의 영향으로, 남성은 이제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유일한 담당자도 아니며, 가족 내에서 남편, 아버지로서의 정서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를 가정 전체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정생활의 장에서는 남녀평등의 과제가 남편과 부인의 평등으로 파악되며, 제 능력의 발전의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라는 평등이념은 가정 내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력재생산의 권리와 기회가 얼마나 평등하게 주어지는가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의 실태는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노동력 자체의 재생산시간<sup>5)</sup>의 평등한 배분 뿐 아니라 가정책임을 수행하는 시간<sup>6)</sup>의 공동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이기영 외, 1994). 또한 가족체계와 남편 및 부인의 취업간의 관계는 대개 '직업체계' 주변에 침투불가능한 경계로 구획되며 특히 남성의 경우 직업의 요구에 가족이 적응

5) 이는 육체적 기능의 재생산시간인 생리적 생활시간과 정신적 기능의 재생산시간인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을 포함한다.

6) 이는 부부 노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통한 수입노동의 공동화 및 부부의 생활주체로서의 자립의 평등한 보장을 통한 가사적 노동의 공동화를 포함한다.

하게 한다 (Deacon & Firebaugh, 1988:157-158)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의 시간배분에 의해서 그들의 시간배분이 좌우되지만, 부인의 직업요구에 남편의 시간은 반응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생활의 주체로서의 개별 가족구성원의 만족감을 감소시키고 생활경험을 왜곡시키며 가정 전체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취업주부의 맞벌이 가정을 보면, 남편의 '무반응적 시간'이 부인의 역할과중을 가져오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Meissner 등 (1975)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 연구를 통해, 여성의 노동에 대한 요구의 증가를 가져온 경제적인 변화와, 노동의 분담에 있어서 성차별적 전통의 지속 간의 모순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부인의 이중노동부담문제가 야기된다고 하였다. 이는 전일제 취업주부의 총 노동시간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의 총노동시간보다 평일에조차도 1시간 30분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노동의 이중부담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이 기영 외(1994)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Myrdal은 남성도 가정과 직장의 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성의 두 역할 수행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나(Pleck, 1985:20에서 재인용),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으며, "새로운 아버지상"에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성의 참여는 저조하여, 대신 어머니들이 이중의 하루를 보냄으로써 비대칭적 노동분담이 증가하는 것이 목인되고 있다(Pleck, 1985:15-20).

전업주부의 가정을 보면 이기영 외(1994)의 연구에서 과거에 비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여전히 장시간으로 나타나 전체 노동시간을 통해 볼 때 남편의 가정책임의 부담정도가 부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현아(199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실제 생활시간구조에서 직업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사적 시간이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의 증감에 따라라도 가사적 시간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남편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남편의 장시간

노동이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성역할 고정화를 초래하여, 부부가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평등적 시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남녀평등의 달성을 위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시간의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남편 개인의 복지적 측면에서 우선 정서적인 면을 살펴보면, 1차 집단인 가정과 그 밖의 2차 집단들은 인간관계의 목적이나 몰입도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통한 건전한 정서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1, 2차 집단과 균형있는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경제적 자립은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지만 생활주체로서의 자립은 가사노동의 숙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러한 가사노동의 숙련은 가정책임의 공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과도한 근무시간은 직업과 가정의 요구에 대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며, 따라서 정서적, 기능적 측면에서 남성의 자립 및 개인적 복지의 증진을 방해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Bernard(1981)에 의하면 산업화 이후 남성에게 생계부양자 역할이 부각되면서 여성의 영역은 가정으로 국한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남성이라 하여 이러한 생계부양자 역할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지적된다. 생계부양자 역할이 남성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의 과도한 몰두 또는 역할의 부정과 거부, 무능력이라는 양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활시간구조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편중된 시간배분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소외감 등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하여 Cose는 산업혁명이 아버지를 가정에서 몰아내어 산업세계에 더 깊이 파묻어버림으로써 가족과의 결합과 유대를 약화시켰다고 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최근의 사회변화의 물결은 남성 역할의 혼돈화를 가져오고 남성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하였다(중앙일보, 1995년 7월 9일자). 따라서 남성의 전인적인 발달, 한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정에 대한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편의 불균형적인

생활시간배분은 그의 개인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국내 연구결과를 통하여서도 지지되고 있는데, 이현아(1994)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의 장시간노동이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남편은 장시간의 직업노동때문에 자신의 여가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공영역인 직장생활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하고, 먹고, 자는' 식의 이러한 단순한 생활패턴은 시대적 요청과는 동떨어진 비인간적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 3. 생활시간 분류방법

생활시간의 분류방법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며, 같은 목적이라도 연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김외숙 외, 1992). 시간분석을 행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각기 상이한 분류방법이 제시되고 사용되었는데, 우선 기존의 시간조사분석에서 사용된 분류방법을 통하여 생활시간 분류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합한 틀을 발견하고자 한다.

60년대 이후 시간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배분하는 시간을 가족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한 요소로 보고 하루의 생활시간을 유급노동에 보낸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에 보낸 비시장노동시간으로 양분하였다. 후에, 비시장시간에는 가정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소비활동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비시장시간을 가사노동과 여가로 구분하여 시장노동시간, 여가, 가사노동시간으로 삼분하는 방법을 택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藤本武(1989)는 생활시간을 크게 수입생활시간과 소비생활시간으로 나누고, 소비생활시간에 생리적/가사적/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이 포함된다고 하였다(김외숙 외, 1992). 이는 생활시간을 노동시간과 노동력

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양분하는 관점을 취한 것이다(이기영 외, 1994). 이러한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伊藤七ツ등(1989)은 생활시간을 수입노동시간과 소비생활시간으로 나누어, 전자는 사회적 노동시간으로 후자는 가정생활시간으로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藤本武와는 달리 가사적 생활시간을 소비생활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노동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입노동시간과 합하여 전노동시간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이기영 외, 1994).

국내 가정학 분야에서는 최근 생활시간을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가정학 초기의 시간사용 연구는 주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노동시간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임정빈(1981)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사노동시간, 가정관리시간, 생리시간, 문화생활시간으로만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를 포함할 뿐 아니라 남편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하여, 이기영 외(1994)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와 이기영·이승미(1994)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연구, 조희금(1993)의 생산직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등의 연구가 수입노동시간을 포함하는 분류를 사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한편 1989년에 시작한 독일통계국 주도의 생활시간조사연구에서 가정학자인 v.Schweitzer는 하루 24시간의 시간구성을 구조적, 기능적,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체계적 가정관리이론의 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간분류틀을 개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하루 24시간을 기본적으로 공적 시간, 가족시간 그리고 개인적 시간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적인 시간은 임금획득, 추가근무, 보조근무, 봉사활동, 직업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통례적으로는 가정의 장을 벗어난 공적인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시간은 구성원의 부양, 양육, 교육을 위한 활동시간으로서 넓은 범주의 가사노동과 가족원의 여가, 이웃과의 조력할

등 등으로 구성되며, 가족원의 삶을 유지, 지지시켜 주는 활동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시간은 인적 자원의 재생산, 질적인 향상 그리고 생리적으로 필수적인 활동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 생활시간영역은 다시 공적 시간과 가족 시간을 묶어 사회적 시간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전체 시간구조를 사회적-개인적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가족 시간과 개인적 시간을 사적 시간으로 묶어, 공적시간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성별 역할분담의 공-사 분리를 시간구조를 통하여 고찰할 수 있게 한다 (v.Schweitzer, 1991:234-235 ; Küster, 1994 :104-105). 생활시간 분류에 관한 이와 같은 관점들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고 있다. 남편은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가사참여를 증가하도록 요구받게 되며(Coverman, 1985, 최수선; 1995:15-16에서 재인용), 부인이 전업주부일 경우 남성들로 하여금 자녀양육참여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어렵게 되므로, 부인의 취업여부는 기혼남성의 가족 관련시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보이나 (Blood & Wolfe, 1960), 남성들의 가사시간이 부인의 취업여부에 무관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이기영 외, 1994; 허경옥, 1994)도 있다.

기혼남성의 직업의 종류와 지위는 직장노동시간을 좌우하게 될 뿐 아니라(이현아, 1994), 그의 가정내 활동 참여를 저해하거나 생리적, 사회문화적 시간의 사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직업지위가

신가정경제학	시장노동시간		비시장노동시간	
伊藤セツ	수입노동시간		소비생활시간	
이기영 외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생리적시간
v.Schweitzer	공적 시간		가족 시간	개인적 시간

<그림 1> 생활시간 분류의 비교

이 중에서 v.Schweitzer의 생활시간분류들은 본 연구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남성의 생활시간구조상 불균형성과 편중성을 파악하는 적합한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v.Schweitzer의 새로운 틀을 토대로 기혼남성의 생활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혼남성들의 생활시간의 사회적-개인적, 공적-사적 시간간의 균형있는 배분 여부를 관찰해보고자 한다.

#### 4. 관련변인 고찰

기혼남성의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부의 취업여부가 남편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은 취업주부의 역할과부하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

높은 전문관리직인 경우에 직장노동시간의 양이나 스케줄, 출장 등에서 더 많은 직업역할이 요구되므로 자연히 가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며(Voydanoff, 1984:2-7),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은 적은 소득으로 자신의 부양자역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많이 하므로 결국 가정일에 소홀하게 된다(이현아, 1994:26-27)고 한다. 또한 남편의 연령은 가사시간에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Coverman, 1986, 허경옥, 1994:93에서 재인용), 생활주기 단계에서 중반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노동에 소비하므로 가사노동시간은 감소되며 신희기와 은퇴기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Rexroat & Shehan, 1987, 최수선, 1995:20-28에서 재인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휴일의 경우 첫 자녀 출산부터 3세

이전까지의 단계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구자들은 남편의 짧은 가사노동시간이 부인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로서 설명하고 있다(이기영 외, 1994). 이는 자신의 주요한 역할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하고 있을 때에는 직장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가정내 역할수행을 하는 데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이현아, 1994: 29-30).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 1) 공적 시간, 가족시간, 개인적 시간으로 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구조는 어떠한가?
  - 2) 공적 시간/사적 시간 그리고 사회적 시간/개인적 시간으로 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2. 각 변인에 따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 1)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 2) 기혼남성의 직업유형에 따른 생활시간구조는 어

떠한가?

3) 기혼남성의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4)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직업이 있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이기영 외 3인, 1994)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와 자료를 이용하여 회수된 330쌍 중 부실기재된 경우를 제외한 284쌍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과 빈도분포를, 부인의 취업여부, 기혼남성의 연령과 직업유형 및 성역할태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고, 모든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하루 24시간을 10분단위로 나누어 구성한 시간일지표(time diary)를 이용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사용을 조사하였다.

7) 시간일지표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 시간, 가족 시간, 개인적 시간을 각각 다음과 같은 활동에 보낸 시간들로 개념화하였다.

\* 공적 시간 - 근무, 집에서의 근무, 통근, 회식, 사회봉사활동 등.

\* 가족 시간 - 조리, 설거지, 청소, 화초돌보기, 세탁, 재봉, 편물, 시장보기, 가족원 돌보기, 자녀의 신체적·비신체적 돌보기, 사회적 육아(학부모회 참가, 개인면담, 학교행사참가 등), 가정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가사노동과 관련된 이동 시간, 가족과 함께 하는 TV시청, 음악감상, 대화·잡담, 취미, 운동·산책·여행, 스포츠 견학 관람, 레크리에이션, 교제, 관혼상제 실시 및 참가, 가족외식, 시부모·친정부모 방문 등.

\* 개인적 시간 - 수면, 식사, 근무중의 식사, 의료, 몸단장, 목욕, 휴식, 교양·연수, 독서, 신문, 혼자서 하는 TV시청, 음악감상, 취미, 운동·산책, 여행, 스포츠 관람, 바둑·장기 두기, 기타 레크리에이션, 편지쓰기, 전화, 종교활동 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남편의 연령	29세 이하	44 (16)	가족생활 주기	자녀가 없는 경우	44 (17)
	30-39세	135 (48)		막내자녀 2세 이하	72 (27)
	40-49세	54 (19)		3세이상 - 취학전	45 (17)
	50세 이상	47 (17)		국민학생인 경우	40 (15)
	계	280 (100)		중학생인 경우	66 (25)
남편의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28 (46)	가계소득	계	267 (100)
	사무기술직	86 (31)		100만원이하	56 (22)
	자영업자	44 (16)		101-150만원	75 (29)
	생산서비스직	12 ( 4)		151-200만원	43 (17)
	기타	10 ( 3)		201-250만원	38 (15)
	계	280 (100)		251만원	49 (19)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65 (23)	계	261 (100)	
	초급대졸	23 ( 8)			
	대졸이상	191 (69)			
	계	279 (100)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1.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

기혼남성의 하루 평균 생활시간 구조를 공적시간, 가족시간 및 개인적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sup>8)</sup>

그림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는 개인적 시간, 공적 시간, 가족시간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적 시간의 경우 평균 임금노동시간이 7시간 28분, 출퇴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1시간 33분으로 나타나 심각한 교통문제가 도시 근로자의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공적시간 중 사회봉사활동은 하루 평균 1분도 되지 않아 시간의 배분이 나와 나를

포함한 가족에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시간은 그 시간량으로도 매우 적지만 특히 가사작업, 가족원 돌보기, 이웃과의 교제가 미미하며 가족활동을 위한 이동시간이 주를 차지하는데, 이는 기혼남성의 가족시간이 이동을 요구하는 백화점쇼핑이나 가족나들이, 자녀 등하교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교통문제와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적 시간은 그 절대량에서는 가장 높지만 주로 필수적인 생리적 재생산에 집중되고 있어 교육, 교양, 운동, 관람 등과 같은 적극적 재생산과 여가를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평일의 경우 공적시간에 10시간 55분, 개인적 시간에 11시간 24분을 사용하는데 반해 가

8) 이 그림은 v. Schweitzer,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1991. p.233에서 수정, 재인용한 것이며, 시간수치는 평일에 5를 곱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더한 다음 7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수치는 요일과 상관없이 평균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각 생활시간영역에 어떤 활동들이 포함되는가는 주7을 참고.

사회적 시간 (11:50)	공적시간(9:02)				공적시간 (9:02)
	임금노동 (7:28)	사회봉사활동 (0:02)	이동 (1:33)		
	가족시간(2:48)				사적시간 (14:58)
가사작업 (0:22)	가족원돌보기 (0:22)	이웃과의 교체 (0:05)	이동 (1:59)		
개인적 시간(12:10)					
개인적 시간 (12:10)	교육/교양 (0:11)	적극적 재생산 (1:11)	생리적 재생산 (10:14)	이동 (0:34)	

〈그림 2〉 기혼남성의 하루평균 생활시간구조<sup>\*)</sup> (시간:분)

족시간은 1시간 41분으로 나타나 기혼남성의 시간이 매우 편파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가족시간, 개인적 시간이 증가하여 요일의 특성을 반영한다.

〈표 2〉 요일별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 (시간: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적시간	10:55	7:35	1:10
가족시간	1:41	3:54	7:05
개인적시간	11:24	12:31	15:45

한편 생활시간을 공적/사적 시간과 사회적/개인적 시간으로 재구성하여 보면, 기혼남성의 사회적 시간과 개인적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 공적인 시간보다는 사적인 시간이 더 많다. 그러나 사적인 시간은 주로 개인적 시간에 치중되어 있다. 각 시간영역별로 세부적인 활동을 비율로 계산해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1)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구조

기혼남성의 생활시간을 공적 시간, 가족 시간, 개인적 시간으로 구분하여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평일의 시간배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의 경향을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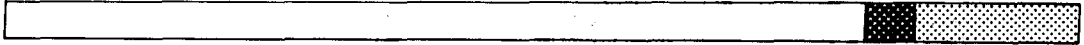
면 평일 공적시간의 경우 취업주부의 기혼남성이 전업주부의 기혼남성보다 공적 시간에 42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업주부의 남편이 가족시간에는 20분, 개인적 시간은 24분을 더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에서 가족시간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평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이기영의 3인, 1994)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차이가 가족시간 중 이웃과의 교류, 가족원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기혼남성의 직업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구조

기혼남성의 직업을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자영업, 생산·서비스직 등 4집단으로 나누어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토요일의 시간배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집단간 차이의 경향을 살펴보면 토요일의 공적시간 경우 자영업의 직업적 특성에 의해 다른 직업유형보다 2시간 가량 더 많은 9시간 16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자영업의 가족시간과 개인적 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생활시간을 공적/사적 시간으로 재구분한 〈그림 4, 5〉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한편 이상의 결과에서 드러난 특징은 생산/서비스직 기혼남성의 경우 토요일의 공적시간이 자영업의 경우보다 거의 2시간 가량 적은데 반해 그 가족시간은 자영업의 경우와 비슷한 점, 또한 생산/서비스직

공적시간



□ 임금노동    ▣ 사회봉사활동    ▤ 이동

가족시간



□ 가사작업    ▣ 가족원돌보기    ▤ 이웃과의 교제    ▥ 이동

개인적시간



□ 교육/교양    ▣ 적극적 재생산    ▤ 생리적 재생산    ▥ 이동

〈그림 3〉 비율로 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

〈표 3〉 각 변수에 따른 남편의 생활시간구조 (시. 분)

		공적시간						가족시간						개인적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t, F값	평균	t, F값	평균	t, F값	평균	t, F값	평균	t, F값	평균	t, F값	평균	t, F값	평균	t, F값	평균	t, F값
부인 취업	취업	11.16		7.45		1.03		1.32		3.49		7.19		11.12		12.26		15.38	
	전업	10.34	2.93**	7.25	.91	1.17	-.56	1.50	-2.15**	3.59	-.60	6.51	1.00	11.36	-1.91*	12.36	-.51	15.52	-.55
직업 유형	전문·관리직	10.57		7.06		1.01		1.41		4.02		7.22		11.22		12.52		15.37	
	사무·기술직	11.11		7.29		0.59		1.43		4.25		6.54		11.06		13.06		16.07	
	자영업직	10.56	.50	9.16	5.31***	1.27	.36	1.37	.15	2.51	4.82***	7.22	1.22	11.27	.59	11.51	2.65**	15.11	1.70
	생산·서비스직	10.25		7.20		1.03		1.53		2.56		5.35		11.42		13.44		17.22	
연령	20대	11.27		7.25		0.51		1.43		4.56		7.30		10.50		11.39		15.39	
	30대	11.10		7.43		0.55		1.35		4.00		7.18		11.15		12.17		15.47	
	40대	10.25	3.88***	7.29	.16	1.07	3.03**	1.47	.50	3.28	5.75***	7.16	3.01**	11.48	3.68**	13.02	3.48**	15.37	.15
	50대	10.18		7.38		2.17		1.46		2.57		5.41		11.56		13.15		16.02	
성역할 태도	보수적	10.51		7.52		1.09		1.43		3.45		6.45		11.25		12.22		13.05	
	중간적	10.58	.09	7.30	.42	1.15	.10	1.37	.32	3.46	.65	7.04	1.06	11.24	.05	12.43	.60	12.40	.88
	진보적	10.56		7.29		1.03		1.43		4.10		7.35		11.20		12.20		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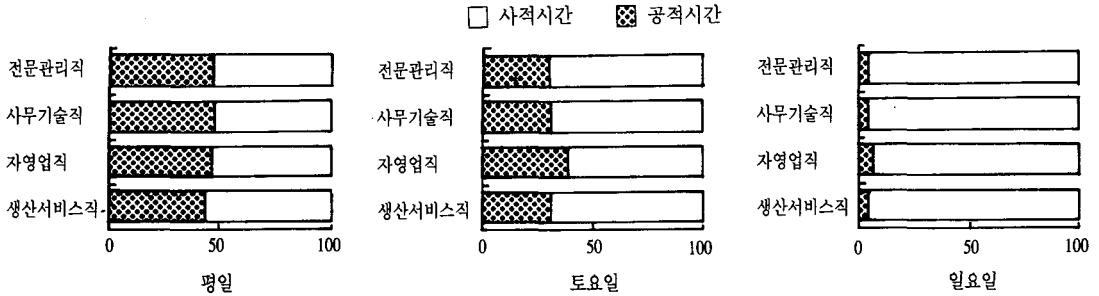
\*\*\* p<.01    \*\* p<.05    \* p<.1

기혼남성의 개인적 시간이 요일에 관계없이 다른 세 집단보다 더 많다는 점(그림 4, 5 참조)이다. 이는 다른 직업유형보다 생산/서비스직의 직업특성상 육체적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직업 중 생산서비스직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명으로서 전문관리직 직종의 1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 간 빈도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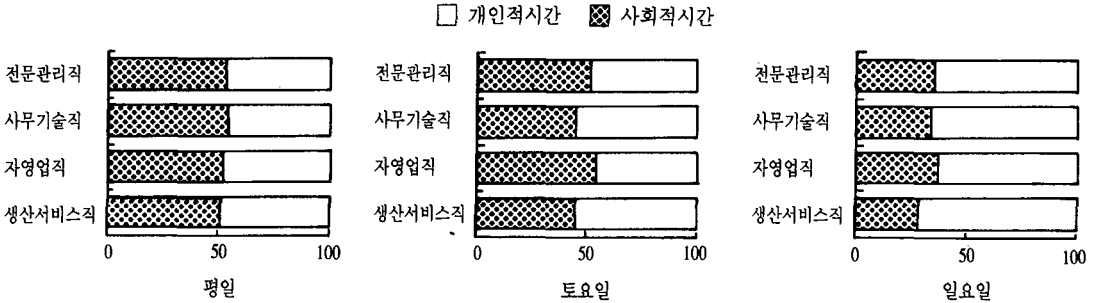
상술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3) 기혼남성의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구조

기혼남성의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평일, 일요일의 공적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의 가족시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



〈그림 4〉 기혼남성의 직업유형에 따른 공적/사적 시간구조



〈그림 5〉 기혼남성의 직업유형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시간구조

인다. 그 경향을 살펴보면 (그림 6, 7 참조) 공적시간의 경우 평일은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시간이 많은데 반해, 일요일은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시간이 많다. 또한 가족시간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는 평일과 달리 토요일, 일요일 모두 연령이 젊을수록 가족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과 가족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이를 잘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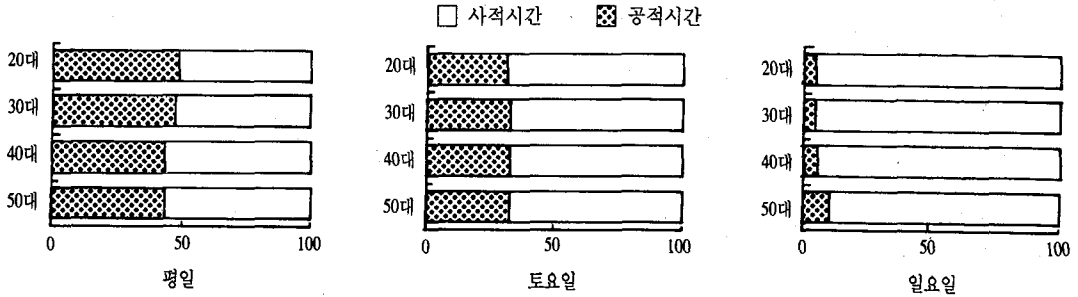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듯이 평일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공적 시간이 적어지는 반면, 일요일에는 연령에 따라 증가되며, 사회적 시간의 경우에는 평일과 토요일에 있어 일관되게 연령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혼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생활시간 구조  
 성역할 태도에 따른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보수적, 중간적, 진보적 집단으로 분류<sup>9)</sup>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요일, 일요일의 가족시간 경우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이 보수적 집단에 비해 각각 25분, 50분정도 더 많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가 전반적인 시간배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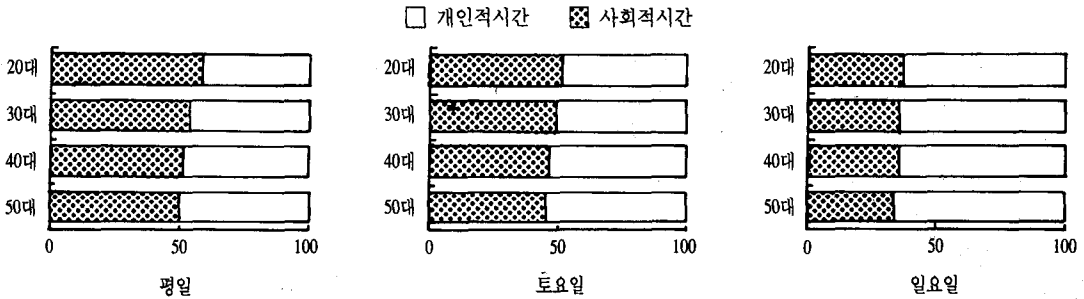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하루의 생활시간을 공적 시간, 가족시

9) 성역할태도 척도는 Bird(1984)와 이기영(1987)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매우 찬성'에서 '매우 반대'까지의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의 분류는 평균점인 10.2점을 기준으로 8점이하, 9-12점, 13점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6〉 기혼남성의 연령에 따른 공적/사적 시간구조



〈그림 7〉 기혼남성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시간구조

간 및 개인적 시간으로 분류한 틀로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기혼남성 개인과 가정의 복지 측면에서 시간구조상의 편중성과 불균형성을 밝히고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의 보나온 가정생활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성들의 생활시간구조를 전반적으로 볼 때, 하루 평균 공적 시간은 개인적 시간(12시간 10분), 공적 시간(9시간 2분) 그리고 가족시간(2시간 48분)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남성근로자의 경우 확실히 가족시간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시간 중에서도 가사작업시간이나 가족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극히 적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 될 수 있겠다. 한편 개인적 시간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이 배분되기는 하지만 식사, 수면, 휴식 등 생리적 재생산에 집중됨으로써, 교양이나 여가를 위한 시간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남성 근로자에 있어 단순히 '일하고, 먹고, 자는' 식의 생활형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선 기혼남성 개인의 복지측면에서 이러한 편중된 생활시간구조는 다양한 생활경험의 조건을 제한하며, 가정에서의 소외감을 야기시키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생활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복지측면에서도 남편의 가족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은 그 시간이 어느 누구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는 주로 아내나 주부로 대표되는 여성에 의하여 과중하게 수행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가정생활의 불균형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선정된 변수들과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의 관계 중에서 유의한 것을 보면, 먼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평일에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취업주부의 기혼남성에 있어서 남편의 가족시간이 더 증가하여야 한다는 통계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따

라서 부인이 직업을 가진 경우 부인의 생활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들의 가족시간이 제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편의 가족시간은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는 한편으로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보다는 다른 가족구성원, 친척이나 가정고용인이 대체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인보다 먼저 귀가하여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남편보다는 오히려 부인보다 더 늦게 퇴근하는 남편이 많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부인의 취업동기에 있어서 재정적인 면이 강하다면, 이는 그들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인이 취업했다고 하여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기혼남성의 연령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늘어나는 가족시간은 세대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가와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나타내며, 동시에 각 직장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늘어난 월정, 월차와 휴무기간과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휴무기간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 외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주저했었다면, 최근에는 그것이 당연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일정한 휴무기간을 지정하여 노동력의 재생산을 지지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책의 수립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균형있게 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직장 내에서의 가족모임, 남성이 가사작업과 양육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나아가서 적절하게 일하고, 적당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또 자기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과 개발시간을 균형있게 가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길이 될 것이며, 남편 개인과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우선 개인적인 의식의 전환과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의식이 사회와 제도의 방향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의식과 실천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 우리 사회와 같은 경우 특히 남성들의 가치관과 생활관이 건전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문으로서 가정관리학의 연구는 변화되는 환경과 사회구성원들의 요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책과 제도에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실태를 분석한 것이며,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러한 대안들이 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에 수용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정관리학 연구자들의 또다른 과제일 것이다.

### 【參考文獻】

- 1) 김순주(1994), 가정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 김의숙(1990),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의숙·이기영·최은숙(1992),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 4) 이기영·김의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5)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2), 11-26.
- 6) 이숙현(1995),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 세미나, 서울특별시·한국가족학 연구

- 회, 7-34.
- 7)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73-87.
  - 9) 조선일보(1993). 9월 9일자.
  - 10) 조은숙(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12) 중앙일보(1995). 북 리뷰 - 엘리스 코즈 著 남성의 세계. 7월 15일자.
  - 13)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 세미나. 서울특별시·한국가족학연구회, 39-80.
  - 15) Bernard, J.(1981). The good provider role ; Its rise and fall, *Families in transition*, 125-144.
  - 16)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2 Ed.). Allyn & Bacon. Inc.
  - 17) Küster, C.(1994). *Leistungen von privaten Haushalten*, Baltmannsweiler : Schneider-Verl. Hohengehren.
  - 18) Meissner, M.E., H.S. Meis., and W. Scheu(1975). No exit for wives : Sexual division of labor and the cumulation of household demands. *Review of Canadian Sociology and Anthropology* 12 : 424-439.
  - 19) Pleck, J.(1985). *Working Wives / Working Husbands*, Sage Publications.
  - 20) V.Schweitzer, R.(1991).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Stuttgart : Ulmer.
  - 21) Voydanoff(1984), *Work and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